기 고

김 덕 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안전속도5030, 보행자 환경 살피는 계기로 삼자

요즘 주요 도심의 제한속도 표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운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홍보문구도 많이 보인다.

산업화 시대 차량 소통 우선 교통문화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이 시행초반에 접어 들었다.

아직은 주민들에게 다소 낯선 안전속도 5030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1990년대에 도입한 제도로 덴마크나 독일 등에서는 교통 사망사고가 20 ~ 24% 줄어드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을 시범실시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주요 골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도심 도로 최고속도는 시속 50㎞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30㎞ 이내 속도 하향을 법률로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것으로 이젠 우리 일상속에서 새로운 운전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 시책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소통정책에 익숙한 일부 주민들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단순 속도 하향이라는 관점에서만 볼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차량소통 우선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변화의 첫단추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안전속도 5030 시범실시 기간동안 통계를 내어보니 13.4㎞구간 운행에 있어 평균 42분 소요되던 것이 44분으로 2분이 늘어 났으나 소요시간 간격차는 미미한 정도였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13%나 줄어 들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에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시속 50㎞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제동거리는 약 27m이지만 시속 60㎞에서는 제동거리가 36m로 조사된바 있다고 한다.

물론 날이 갈수록 차량 성능은 좋아지고 있고 사통팔달 도로가 뚫리면서 도로환경이 급변했는데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과히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할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보행자 사망사고의 절반이 도로횡단 중 사고라고 하니 어느 한 단면만 보아서는 안될 듯 한데 우리나라 교통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은 약40%로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도 약 2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필자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출퇴근길에 5030 안전속도에 맞추어 운행을 하다보니 처음에만 다소 불편하기는 했지만 출퇴근시간이 늦어진다거나 연료비가 많이 소모된다거나 하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까지 초래할 정도는 아니였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인명보호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추어 성숙한 시민의식속에 사람중심 교통문화의 패러다임이 정착되길 바래본다.

과속운전을 삼가는 것은 자신은 물론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도 현명한 자세다. 차제에 차량의 원활한 흐름속에서도 보행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전반을 되살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교통문화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안전속도5030은 이제 첫 시작인 만큼 우리 모두 안전의식 생활화로 훨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보자.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 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꼭 살피자

이른 아침 출근 길, 횡단보도 신호 녹색 점등이 켜지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횡단보도 내 설치된 안내음성 소리에 따라 좌우를 살피고 보행하려던 찰나 급속도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할 뻔한 경험이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으며,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차량 내에서는 우회전 시, 명확하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운전 습관을 키우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임은 물론 자신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의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보다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올바른 운전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나 자신 또한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스스로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글을 통해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살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로보다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김정배/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경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공사장 봄철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주의

봄철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해당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접·용단은 고열을 통해 금속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이때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티가 가연물에 조금만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티는 직경이 0.3 ~ 3mm로 작지만 온도가 무려 3,000 ˚C 에 이르며 작업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1m까지 불티가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 불티가 인화성 유증기와 접촉하는 순간 화재가 아닌 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업 전에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제거해야합니다.

공사장의 특성상 위험물의 이동이나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불티가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불티 비산방지 덮개와 불꽃받이를 용접·용단기 주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유철/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